

白頭山 觀光開發計劃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for Mt. Baek du

俞 義 烈*
You, Eui Yoal

I. 序論

韓半島의 最大 名山이자 中國 東北地域의 主要한 觀光자원인 白頭山(長白山)은 韓民族의 靈山으로서, 여러 民族의 根源地로서, 또한 天惠의 自然자원을 소유한 自然保護區로서 世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中國의 開放化 政策, 經濟開發의 推進과 더불어 白頭山 地대에 자리잡고 있는 中國 吉林省 沿邊 朝鮮族 自治洲內 安圖縣 人民政府는 1992년 6월 「安圖遊覽經濟開發區」를 정식 발족시켰으며, 白頭山 天池 등 일련의 名勝地를 비롯하여 國際觀光地區를 설치하고 白頭山 觀光의 與件整備를 비롯하여 觀光事業에 대한 投資價値의 認識度를 높이고 觀光開發의 원동력인 財源調達을 위해 投資誘致를 促求하는 등 觀光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韓國 造景界는 1990년 1월 世界 韓民族 科學者 大會 韓國總會 참가차 방한한 中國 吉林省 園林學會측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延吉市의 숙원사업인 「延吉市 帽兒山 自然公園」에 대한 基本計劃을 樹立 提供하였으며, 1992년 8월 IFLA 한국총회를 계기로 중국과의 친선도모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왔으며, 현재까지도 中國 造景界와 學術 및 技術部門에서 相互 共助 體制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中國側 白頭山(長白山)에 대한 觀光開發計劃은 1992년 7월 中國 吉林省 安圖縣 人民政

부터 容역을 제의받은 이후 2차에 걸친 현지답사와 자료수집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1992년 11월에는 安圖縣 縣長一行이 내한하여 韓國綜合展示場(KOEX)에서 開發說明會를 가진 바 있고, 韓國造景聯合會와 (株)新和건설팅이 공동으로 契約을 締結하고 計劃을 遂行하게 되었다.

II. 白頭山 觀光開發計劃

1. 계획의 背景 및 目的

1) 計劃의 背景

白頭山 및 安圖縣은 우수한 觀光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여러가지 여건상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觀光環境의 變化, 開放化 政策에 따른 觀光機會의 增加, 周邊國 및 國際情勢에 대한 變化 등의 요인으로 안도현을 포함한 중국 觀光시장은 활성화되고 또한 성장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백두산을 비롯한 안도현의 觀光 활성화를 도모하고 中國 東北地域의 觀光名所 이자 명실상부한 國際的인 觀光地로 開發함과 더불어 주요한 환경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健全한 개발방향이 시급한 실정이다.

2) 計劃의 目的

- 環境保全을 위한 對策의 樹立과 開發의 均衡化를 기할 수 있는 健全하고 持續可能한 開發

* 造景 技術士, (株)新和건설팅 代表 理事.

-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관광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未來 指向的이며 國際的 感覺을 갖춘 觀光地 開發
- 광역권을 비롯한 대상지의 관광개발 체계를 설정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適正開發體制의 構築
-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생활환경을 비롯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地域開發의 促進을 위한 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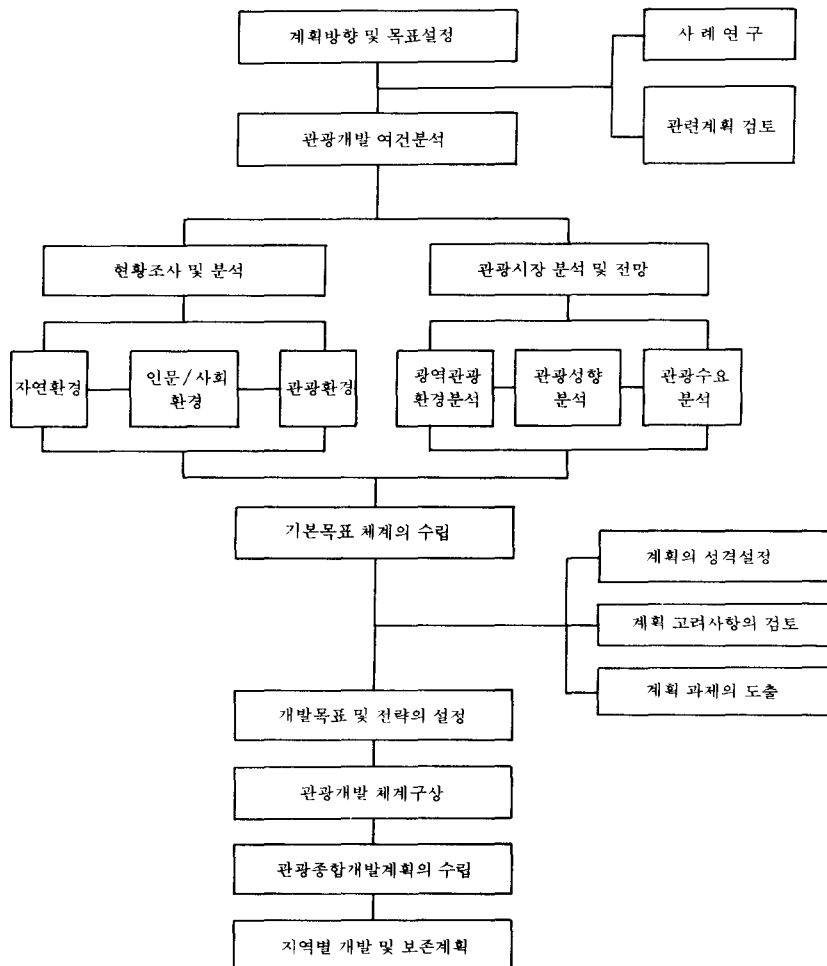
1) 計劃의 範圍

白頭山을 비롯한 中國 吉林省 安圖縣 一帶 (총 면적 7,438km²)

- 長白瀑布 및 既存施設地域
- 新集團施設地域
- 明月鎮 二龍山 地域
- 雨江댐 周邊
- 藥水休養地域
- 萬寶 地域
- 中·北韓 國境地域

2. 計劃의 範圍 및 遂行方法

2) 計劃의 遂行方法



3. 對象地의 概要

1) 位置 및 面積

- 안도현은 中國 吉林省 東部の 山間地區로 沿邊 朝鮮族 自治州의 西南部에 위치하며 남으로 백두산 천지의 쌍목봉을 분계선으로 북한의 양강도 삼지군과 접해 있으며 中國의 首都인 北京에서 1,172Km, 吉林省 省都인 長春에서 380Km 거리에 위치 총면적은 7,438km²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총면적의 17.6%를 차지하며, 남북길이 170Km, 동서길이 142Km로 한국의 충청북도 면적과 유사함



2) 自然環境

- 안도현은 산악지대로 장백산맥의 主峰인 백두산(2,749m)을 정점으로 高山地帶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南高北低의 地形地勢를 지니며, 전반적으로 지세가 높고 산이 많은 반면 평지는 적음
- 대상지내에는 백두산 천지(2,194m)에서 發源된 크고 작은 하천들이 대상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대상지 하천의 총연장길이는 1,800여 Km, 유역면적 5,870km², 연간 총 흐름량 40억 m³으로 풍부하며, 지하수 자원 활용 역시 용이한 편임

- 안도현은 증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와 고지대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며, 지역의 특성상 산지와 평지의 기후와 기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안개와 비가 많이 내리고 적설기간이 9월 하순에서 다음해 6월 중순까지로 연중 9개월간 눈이 덮여 있음.
- 관광자원으로는 백두산 정상부의 천지를 비롯하여 長白瀑布, 小天池, 溫泉과 礦泉水, 美人松 등 뛰어난 경관자원과 더불어 UN에서 지정한 長白山 生物圈 保護區, 수직관대(식물의 垂直分布), 地下森林 등 原始 自然資源이 대상지내에 산재함

3) 人文社會環境

- 중국 동북부지역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으로 구성되며, 길림성의 인구는 2,500만명 정도이고, 중국 거주 조선족수는 전국적으로 1백 92만명(1990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중국 소수민족중 13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길림성내 연변지역이 주요 거주지역임
- 연변은 1952년 9월 「中華人民共和國 民族區域 自治 實施要綱」에 근거하여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공표되었으며, 자치주의 총면적은 42,700km²으로 길림성 총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며, 동쪽으로 소련의 연해주 하산지구와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의 함경북도 및 양강도와 연하고 있음
- 자치주의 총인구는 2백만 3천여명으로 한족(56%)을 비롯한 19개 민족으로 구성되며 주체민족인 조선족은 자치주 총인구의 40.7%로 81만 5천명 정도임.
- 자치주는 연길, 도문, 돈화, 용정, 훈춘의 5개 시와 안도, 화룡, 왕청의 3개현을 관할하고 있으며, 연길시가 자치주의 所在地임
- 안도현의 총인구는 22만명으로 한족 71.6%, 조선족 26.1%, 기타 민족, 화족 등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도현의 5개 鎮에 거주하는 인구는 14만명으로 약 63%를 차지하며, 소수민족간에 주로 집단 거주촌을 형성하고 있음

- 지역내외의 기존 交通體系는 취약하고 교통 시설이 낙후하여 접근성이 어렵고 지역발전의 부진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주요 航空路는 장춘-연길, 심양-연길 노선이 있으며, 연길 민항비행장은 93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확장공사중에 있으며, 연변 국제공항이 연길시 외곽지역에 계획중임
- 주요 鐵道로는 장춘-도문간의 長圖線이 연길과 명월진을 통과하고 있으며, 일부구간의 森鐵을 비롯한 產業鐵道로 단순함
- 연변지방 및 안도현을 잇는 主要道路는 國道, 省幹線道路, 縣幹線道路와 林產道路, 主要公路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도로체계로는 國道인 우란호트-도문선이 연길과 명월진을 통과하며, 鶴崗-旅大선이 돈화, 타푸차이허, 송강, 이도백하를 통과하고 있고, 省幹線道路가 명월진, 만보, 동청과 용정, 화룡, 송강을 통과하고 있음

4. 開發의 方向

- 未來指向的인 觀光發展의 目標體系 確立
미래사회의 국내·외 환경변화추세와 바람직한 관광발전목표의 설정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 관광지로의 개발
- 適正 觀光開發體制의 構築을 위한 全般的이고 綜合的인 長期開發計劃의 樹立
계획대상지의 適正 觀光開發體制(Optimum

Tourism Development System)를 구축하고 계획대상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의 수립

- 廣域觀光體系의 確立
광역관광체계상의 지역역할 및 잠재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연계체계 및 접근체계를 구축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의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계획관광지로서의 기반구축
- 觀光活動을 통한 地域經濟의 活性化와 地域社會의 觀光與件 改善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戰略産業化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의 촉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관광수용태세 및 관광활동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 문화적 여건의 개선을 도모
- 地域性을 考慮한 觀光地開發
관광거점지로서의 안도현의 地里的 特性 및 地域性을 고려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環境保護對策과 開發의 均衡에 의한 持續可能的인 觀光開發의 樹立
백두산의 보전을 위한 環境保護對策의 樹立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발전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계획
- 段階別 開發計劃과 合理的인 投資方案을 考慮한 觀光綜合開發計劃의 樹立
사업추진시 장기개발계획에 근거한 단계별 개발계획과 합리적 투자방안을 고려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

5. 地域別 開發計劃

구분	개발전략	개발방향	도입시설	비고
장백폭포 및 기존 시설지역	•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장백산 등정 및 자연탐승의 기회제공 • 적극적 환경보전	•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과다한 개발의 지양 • 기존숙박시설을 신집단시설지역으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 • 보전차원의 시설정비 • 자연탐방 및 경관감상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 등반로, 상하수도,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우선도입	• 장백폭포 • 소천지 • 미인송, 기암괴석의 절경 • 삼림욕장 • 야생자연박물관 • Cable car 설치 검토	• 개발사업 및 투자 최우선 지역

구 분	개발전략	개발방향	도입시설	비 고
신 집 단 시설지역	·장백산 관광의 거점 기지화로 4계절 종합관광단지로의 조성	·관광, 위락, 휴양 등 다양한 욕구수용을 위한 종합관광단지의 조성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 ·숙박타운 및 쇼핑, 상가시설, 편의시설의 확보	·동계스포츠시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승마장, 수렵원 ·관광호텔 및 여관 등의 숙박시설 ·간이골프장	·개발사업 및 투자 최우선 지역 ·개발권내 중점 육성대상
명 월 진 이 룡 산 근린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근린공원형으로 일상여가, 휴식 및 스포츠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일상 여가, 사회교육의 장 기능 및 지역공동체 활동, 피크닉 등의 필요 시설 도입 ·가족 및 청소년 층을 위한 스포츠 시설의 도입 ·이룡산과 면한 도로부의 광장을 가로공원 등의 휴게광장조성으로 명월진의 중심지구로 활용	·지역공동시설 ·다목적 운동장 ·피크닉, 산책, 전망시설 ·체력단련장 ·쉼터	·공공시설 차원의 개발사업 및 투자 최우선 지역
명 월 호 주변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정적수변시설 위주의 호반관광지로 조성	·명월진과 가장 근접한 관광지역으로 단기체재형 관광지로의 개발 ·동적 수변위락 활동을 탈피하여 호반의 전원적 풍경 및 가족휴양촌으로 육성 ·지역주민의 1일 휴양, 여가 등의 호수공원으로 개발	·수변휴양/휴게시설 ·잔디원지 ·다목적광장 ·레크레이션 센터 ·자연학습장 ·자연관찰지	·안도현내 주거점 도시 명월진과 약 45Km지점에 위치하고 명월진과의 관련방안 모색 ·상수원 고려
양 강 댐 주변지역	·수변 종합관광 위락단지 및 타운의 조성 ·하절기 지향의 관광매력시설의 도입	·수변 레크레이션 및 수상스포츠 시설의 도입 ·소규모 Water Park 및 물놀이 시설의 도입 ·하절기 중심의 공간 및 시설개발 ·관광유람선의 도입 및 루트화 방안 모색 ·경제개발구의 거점도시인 이도진의 산업시설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리조트로의 개발가능성 모색	·수변종합위락센터 ·수상레저시설 ·관광 유람선 ·수변 전망대	·댐 및 수력발전 시설의 투자유치 방안 모색 ·상수원 고려
약 수 터 지 역	·고급형 휴양단지로의 조성 ·주변자원 및 시설을 연대하여 중·장기 체류형 관광지화	·보양, 휴양 및 위락을 결합할 수 있는 고급지향의 휴양 및 보양지로 개발 ·주변 이도진 및 양강댐 지역과 연계개발함으로써 대상지의 관광매력도 증진효과 기대 ·다양한 계층의 4계절형 이용가능 시설 개발 ·중·장기 체류가 가능한 고급숙박 휴양시설의 개발	·휴양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휴양원 ·한방 요양원 ·체력단련 및 의료검진시설 ·빌라타입의 고급형 숙박시설 ·복지형 숙박시설	·체인형 숙박시설 및 콘도미니엄의 유치가능성 모색
만보민속 마을	·역사, 문화유적을 활용한 중간기착지의 휴게지역으로 조성 ·단기체재 및 통과	·개발대상지의 특색있는 역사, 전통, 문화를 발굴, 관광상품화 방안의 강구 ·공예품제작, 특산물, 향토음식, 토속주 등의 관광시장 개설 ·명월진으로부터 이도백하 사이의 중간 기착	·쇼핑, 전시, 관람 ·교양, 문화시설의 도입 ·민속음식점 ·특산물 판매장	·개발사업 및 투자 대상의 하순위 ·모형문화개발 방식의 적용지 (Model Cul-

구 분	개발 전략	개발 방향	도입 시설	비 고
만보민속 마을	휴식형 관광지로 개발	지로 휴식 및 관광활동을 위한 시설의 배치	·교양문화시설 ·민속공예방	ture 방식)로 지역 사회와의 마찰 전통문화상설의 역기능방지 및 외래관광객활동지구의 설치
중·북한 국경자유 무역지역	·정치, 경제, 역사적 소재와 연계된 국경관광지대로 개발 ·장백산 관광의 중간기착지화	·전세계 화해무드 및 한반도통일의 잠재성을 고려한 관광 및 국경 자유무역지대로서의 활성화 ·실향민 망향시설 및 통일을 대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개발	·자유무역지대관련 공공시설 ·실향민 망향시설 ·전망대, 기념탑 ·교육장(상황설명장) ·유료관측시설 ·기념광장	·교역센터 및 무역 관련시설의 투자 방안모색

6. 計劃의 考慮事項

본 사업은 開發對象地의 與件과 特性을 考慮할 때 그 規模가 多樣하고 大規模이며, 향후 도입될 施設의 種類와 性格은 단기간에 特定의 方式에 의한 一括의인 개발로는 효과적인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환경에 미칠 영향 또한 극심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각 대상지가 지닌 潛在力과 制約條件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극복하여 전체사업에 대한 장기계획하여 地域別, 施設別로 개발에 時差를 두어 段階的으로 推進하고 개발대상지의 機能과 影響 등을 감안하여 開發의 優先順位를 결정한다.

- 實行 가능한 實踐的 計劃의 樹立
- 觀光開發의 基盤이 되며 初期投資費가 높은 空港, 道路, 電氣·通信, 上·下水道 등의 基盤 施設(Infra Structure)의 整備와 優先 造成으로 開發體系의 構築
- 觀光환경의 조성과 이용서비스 여건의 개선으로 觀光 收用態勢의 遂行
- 적용가능한 與件整備, 도입가능한 開發手段 및 投資規模를 감안한 計劃의 樹立
- 觀光開發과 環境保全의 效率의 均衡을 原則으로 한 段階別 計劃의 考慮
- 관광개발의 財政確保를 위한 投資環境의 造

성과 합리적 投資方案의 造成 등 財源調達 및 投資計劃이 선행되는 계획

- 開發與件, 開發의 優先順位, 段階別 開發事業을 고려한 效率의 開發事業의 體系構築
- 地域經濟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역의 優先開發과 觀光需要의 增加에 따라 漸進的 觀光開發의 試圖
- 國民觀光의 重要性
- 정치적 여건과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한 國際觀光事業의 特性을 감안하여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갖는 內需市場을 바탕으로 한 觀光開發計劃의 考慮
- 國民觀光을 基盤으로 한 관광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國民觀光의 大前提下에 國際觀光의 成長 및 調和를 追求

Ⅲ. 向後 課題 및 結論

본 계획은 주 대상지인 中國側 白頭山(長白山)에 대하여 具體적이고 物理的인 總體的 開發計劃樹立을 위한 開發의 方向 및 指針에 대한 提案과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觀光綜合開發計劃의 樹立을 위한 方案提示를 주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觀光開發의 財政確保를 위한 投資業體의 選定과 더불어 觀光開發을 위한 基本 및 實施設計를 거쳐 현실화 하는 일에 있다. 현재 中國은 開放化의 물결과 더불어 대규모 外國技術과 資本의 導入으로 經濟復興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도 그동안 論議段階에 머물러 있던 UN의 豆滿江 大三角 開發圈의 훈춘특구가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며, 예로부터 韓民族의 주 활동무대였던 延길지역도 沿邊 國際飛行場의 建設계획과 더불어 韓國工團의 유치를 비롯하여 民族의 特色을 갖춘 開放型 貿易都市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때 그동안 우리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었던 民族의 靈山인 백두산으로 눈길을 돌려 民族의 自矜心을 높이며, 또한 우리의 손길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到來한 것이다.

한편 백두산은 현재 中·北韓의 國境地帶에 위치하여 兩國이 共同所有하고 있는 상황이며, 天惠의 環境資源을 合理的으로 保全하기 위한 次元에서, 또한 未來指向的인 觀光開發의 次元에서 볼 때 中·北韓 兩國이 共同開發 形式이나 連繫體系를 構築한 總體的 開發計劃이 가장 바람직하며, 觀光 活性化 側面에서도 效率的이라는 점은 自明하다. 현재 이를 위한 論議가 韓國·中國·北韓 3국간에 進行중이며, 韓國 造景界는 백두산이 단순한 山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神話的 尊嚴性을 느끼게 하는 우리 民族의 母胎요, 民族의 얼이며, 民族和合의 象徴的 意味로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현안인 政治的 現實의 壁을 넘어서 純粹한 動機의 文化的 接觸과 交流를 통하여 觀光開發의 推進事業을 한걸음씩 進行중에 있다.